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4월 뉴스레터 vol. 6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조합소식 SE로운 공동행동 출발선언 발대식
- 채우고 비우고 혼자 죽기를 권한다
-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제주도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애도와 추모
- 장례후기 이렇게 좋은 상조가 있을까요?
- 알쓸신장 장사 방법
- 채비학교 '나와 만나는 책 읽기' 수강생 모집
- 조합소식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모두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길 SE로운 공동행동 출발선언 발대식



지난 3월 30일 공간채비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대표 이승석, 연대회의)가 현장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SE로운 공동행동’ 제1차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겨레두레) 회원되기‘ 출범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약 40여 명의 지역과 협종, 협의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더센물을 활용한 약정회원되기’ 등 다채로운 순서가 펼쳐졌습니다.

여는 말에서 이승석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정체성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행동은 사회적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전국적 단위의 공식적인 결의”라고 평가했으며, 제1호 공동행동에 선정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창환 회장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주자로 선정돼 기쁘지만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뒤이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박남수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신임회장,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이사장,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류홍번 일하는사람들의사회적협동조합동행 상임이사,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그 자리에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뒤이은 순서에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SE로운공동행동’ 이벤트 페이지와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참가자들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열어 실제 구매를 하였고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가 가격구조와 조합원 가입과 이용회원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원뿔형 조형물을 둘러싸고 저마다 손수건을 묶고 길게 이어 달팽이 모양을 만들었고 한목소리로 “모두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길”을 연호하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공동행동을 통해 한겨레두레를 규모화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인데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SE로운 공동행동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소개 동영상

<https://youtu.be/CHEIrxpGPIU>

혼자 죽기를 권한다



다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혼자 사는 70대 남자 ② 혼자 사는 70대 여자 ③ 부부와 아이 둘로 구성된 가족 중 40대 여성 ④ 50대 부부 중 남편. 답은 ②번이다. 할머니가 혼자 살면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은데 생활 만족도가 높다니 무슨 말일까.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지은이 우에노 지즈코는 말한다.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롭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일 외로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노인이죠..”

그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 고독사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럴까. 싱글여성은 싱글남성과 달리 대부분 친구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사회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 우에노 지즈코도 혼자 살고 있다. 70대인 그는 만족스러운 노후생활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첫째,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우에노 지즈코는 수많은 요양시설에 가서 직원들에게 물었다. “당신도 나중에 여기 들어오고 싶나요?” 직원들은 말문이 막힌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요양시설에서는 자유가 제한된다.

둘째,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수많은 정신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내 말을 들어주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존재가 나의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

셋째,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생활비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도 없을 것이다. 자식이 도울 처지가 못된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가난한 노후는 생존을 위협한다. 자신이든 누구든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의 필수조건이다.

혼자 살면 편하다. 문제는 죽고 난 다음이다. 나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에노 지즈코는 이렇게 답한다.

“바로 그래서 간병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방문간병만 받아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동안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될 거라는 협박조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노후에 대한 상식이 급변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나이 들어서 자식이나 배우자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용기를 내자. 시설을 거부하자. 집에서 혼자 죽어도 괜찮다! 어차피 모든 죽음은 ‘고독사’이지 않은가.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제주도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애도와 추모



4월 5일 오전에 부고를 받고 당일 밤에 급하게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하필 강풍이 불어 비행기편 잡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연착으로 인해서 사람이 뺄뺄했다. 상주인 K조합원은 어떻게 남편의 장례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준비해왔다.

집 앞 통로 좌우에 촛불로 만든 조등이 켜져 있었고, 꽃 바구니 몇 개가 놓여있었다. 고인은 최근에 병세가 나빠져서 불가피하게 요양원에 있었다. 고인이 평소에 바람처럼 집에서 임종하지는 못했지만 임종 후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고인은 평소 기거하던 방에 단정히 안치되었다. 고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상주와 다음 날부터 진행할 장례 일정과 거실을 어떻게 빈소로 꾸밀지 전에 의논했던 사항들을 간단히 나누었다.

이번 장례는 고인을 잘 알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던 지인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다. 상주의 바람은 고인을 아는 이들과 함께 고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것이었다. 장례 첫날 오전에 고인의 입관식을 진행했다. 누군가 준비해 준 ‘티벳 사자의 서(書)’ 중 일부를 함께 낭송했다. 거실 창에 그림 없는 병풍을 세우고, 고인이 평소에 앉던 긴 테이블 탁자를 비치해서 그 위에 관을 놓았다. 흰 광목 면포로 관 전체를 넓게 덮고, 관 위 아래에 아름다운 꽃을 한 아름씩 정돈해 두었다.

바로 옆에는 고인이 평소에 식사를 하던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초와 화환으로 장식을 하고, 고인의 생애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고인은 천문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자금의 상주를 아내로 만나서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평소 온화하고 밝은 웃음과 선한 성품 때문에 그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늘 몸으로 성실히 살아 온 사람이라고 지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상주인 K조합원은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장례가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바랐다. 지인들은 그 바람을 잘 이해했고 최선을 다해 도왔다. 마을 회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3일 내내 맛있는 밥을 지어내었다. 너무나 정성스럽고 맛있었다. 장례내내 주방은 활기가 넘쳤다. 식사 자리에도 빔프로젝터를 놓아서 고인의 생애 영상을 함께 보았다.

부고를 많이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고인의 임종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조문했다. 조문 오는 이들과 꽃을 품고 왔다. 상주가 부의금을 거절하자 고인이 생전에 정원에서 꽃 가꾸는 일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정성을 드렸다. 관은 꽃으로 덮혔고, 빈소를 차린 거실은 향기로 가득했다. 톱툰이 지인들의 피아노 연주와 애도하는 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시 낭독을 하는 지인도 있었다. 저녁에는 유족과 지인들이 씨클댄스로 애도하고 위로했다. 마지막 날 밤에는 둘러앉아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양지공원에서 고인을 화장하여 유골을 받아 온 뒤 모두 마을 뒷동산 굴밭에 올라갔다. 그 곳에는 고인의 수목장을 위해서 준비해둔 먼나무 두 그루 있었다. 마침 한 시간 전에 같은 마을에 사는 분이 두 그루 중 하나에 가족을 수목장 하면서 첼로 연주와 노래공연을 하였다. 이웃의 먼나무 주변에 꽃들이 놓여져 있었다.

상주인 K조합원과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유골과 마사토를 배합한 것을 먼나무 주변에 뿌리고 작은 돌담을 세우고 꽃을 그 위에 심었다. 아름다웠다. 수목장을 마치고 모두 둥글게 서서 씨클댄스를 추었다. 고인을 생각하며 서로 손을 잡고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애도의 마음을 파란 제주 하늘에 올렸다. 많은 이들이 모아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며 힘들어 할 K조합원은 깊은 위로 받았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였고, 꽃을 들고 고인이 묻힌 나무와 함께 환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었다.

장례의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신비하였다. 서울 채비에서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이번 장례는 채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할 방향을 생생하게 그려주었다. 마지막 순간은 살아온 과정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따라서 열심히 살아 온 만큼 마지막 순간을 애도와 추모가 가득한 장례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남은 이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타인의 시선, 신속한 장례처리가 아닌 진정 고인을 위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이렇게 좋은 상조가 있을까요?



저희는 한 달 전 부천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누구나 가족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애통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찾아온 아빠의 비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린 셋 딸들을 데리고 부고도 알릴 수 없는 장례를 치뤄야 했는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오신 장례지도사님 덕분에 정말 편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새벽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가 딸들과 저라는 얘기를 듣고 여성 장례지도사님을 보내주신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장례절차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슬픔까지 꼼꼼히 살피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감동이었습니다.

2년 전 친정엄마 장례는 다른 상조에서 치렀는데 진작에 채비를 알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마저 듭니다.

비용도 반 이상이나 저렴하게 하는데도 질은 훨씬 좋고, 장례지도사님과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찌나 배려 깊은지 모릅니다.

꼭꼭 장례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로 바꿔 걸치레와 바가지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장례지도사님,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

부천 딸셋 조합원

장사 방법

장사란 시신과 유골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으로 화장 후 골분을 자연장하거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비** ☛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장사방법 01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와 개인, 가족 등이 관리하는 사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방법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차

① **개인** 운구 > 하관 > 유족취토 > 성분 > 성분제(평토제)

② **공설** 묘지도착 > 서류접수 > 매장지운구 > 하관 > 유족취토 > 성분 > 성분제(평토제)



☛ **채비** ☛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장사방법 02

화장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됩니다.
 ※ 사설경내의 다비의식으로 화장하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절차 ★ e하늘 장사전보시스템을 통해 예약접수를 해야합니다.★

화장예약 >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과 화장 증명서 인수 > 안치장소 이동



장사방법 03

봉안 (납골)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여러 형태의 시설물에 안치하는 것



절차

① **공설봉안시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봉안시설

② **사설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교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봉안시설

☛ **채비** ☛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장사방법 04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수목,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 장법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공설자연장지와 개인, 가족, 법인 등이 관리하는 사설자연장지가 있습니다.

방법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종류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수목장림

☛ **채비** ☛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장사방법 05

해양산분

선박을 이용하여 제를 지내며, 지정된 부표 혹은 장소에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거나 특수 유골함을 띄워보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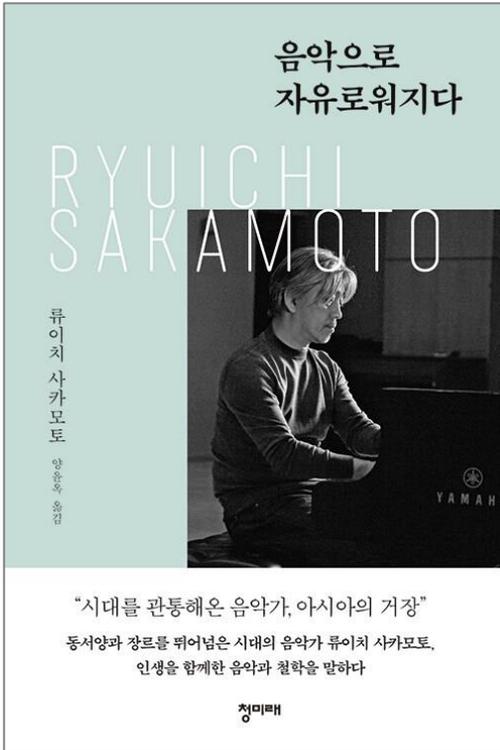
기준 및 방법 〈출처〉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2012.6.19)

-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합니다.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합니다.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적 자서전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류이치 사카모토 | 청미래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릴 적 유치원에서 처음 피아노와 작곡을 접했다. 자신의 경험이 음악으로 재탄생한 순간에 “근질거리는 듯한 기쁨”과 “위화감”을 동시에 느꼈다는 그는 10대 시절 내내 음악을 계속 공부하며 클래식 음악과 팝은 물론 현대음악으로까지 천천히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류이치 사카모토를 설명하는 수식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알린 장르는 영화음악일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에게 영화음악가로서 명성을 안겨준 영화 「마지막 황제」 작업기를 애정을 담아 서술한다. 애초 배우로 이 영화에 참여했던 그는 제국주의자 아마카스 마사히코 역할을 맡아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의 흔적이 남은 촬영장에서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중 베르톨루치 감독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생음악을 작곡한 것을 계기로 영화음악 전체를 맡게 되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사카모토와 영화 제작팀은 BBC와 NHK의 회선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2주일 만에 음악을 만들어냈고, 그는 이 음악들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쥐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인 전공투 세대의 일원으로서 10대로서는 드물게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교복과 교모의 철폐, 시험 및 생활 통지표 폐지 등을 외치며 수업 거부 운동을 이끌던 그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교정보다는 데모에 나가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카모토가 직접 목격한 9-11 테러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져서 그가 평화와 반전(反戰)에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내전과 기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환경 문제와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모어 트리즈(More Trees)”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지구 온난화 억지에 힘쓰고 있다.

책의 말미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자신이 스스로 음악가임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걸맞게 이 책에는 사카모토에게 영향을 준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가족과 친구, 연애와 결혼 이야기 등 사적인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학교] ‘나와 만나는 책 읽기’ 수강생 모집

책 읽기를 통해 상실과 애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에세이,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삶의 동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며, 책과 나 사이 생략된 질문 찾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목표: 자기 감정 이해하기
- 내용: 애도와 상실에 관한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나의 죽음 준비,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는 법, 책과 나 사이 생략된 질문 찾기와 질문에 대답하기
- 대상: 독서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일정: 5/3(수), 6/7(수), 7/5(수), 9/21(목), 10/26(목), 11/30(목)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5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총 6만원(간단한 저녁 식사 제공)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vpyiX9wnMTq96jSA>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진행방법

- ① 월1회 총 연 6회 정해진 책을 읽고 정해진 날짜에 만납니다.
- ② 책 한권당 발제자를 선정한다. 발제자는 책의 간략한 개요를 정리하고 참여자는 인상적인 문장과 단상, 읽고 느낌 감정을 구성원과 이야기한다.
- ③ 모임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의 가이드에 따라 책의 이해를 높입니다.

회차	선정 책	날짜
1회	아침의 피아노/ 김진영/ 한겨레출판	5월 3일(수) 19 ~ 21시
2회	감정의 발견/마크 브래킷/ 북라이프 EQ 감성지능/ 대니얼 골먼/웅진 지식하우스	6월 7일(수) 19 ~ 21시
3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옥타비아 버틀러/비채	7월 5일 (수) 19 ~ 21시
4회	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더 마그나손/북하우스	9월 21일(목) 19 ~ 21시
5회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소갈 린포체/민음사	10월 25일(목) 19 ~ 21시
6회	생명이란 무엇인가/린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리수	11월 30일(목) 19 ~ 21시

[서울조합]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모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을 위한 작은 모임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간 채비를 이용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채비장례와 연결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작은 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5월 ~ 10월
- 모집 분야: 우리 조합 사업과 관계된 모든 주제
- 모집 대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인, 가족 등 조합 선정 기준에 부합한 모임
- 지원 내용: 총 200만원 지원(각 모임당: 운영비 30만원, 채비공간 7시간 이용권(70만원))
- 지원 규모: 2개 모임(모임당 인원 최소 5인 이상)
- 모집기간: 2023 4월 12일 ~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진행: 모집 > 심사(서류 + 전화) > 선정자 발표(개별통보)
 - 문의: memorypicture@naver.com / 722-9517/720-9517 (오전10시~오후 5시)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https://blog.naver.com/chaebi_official/223070152394 다운로드)
 - 신청: 이메일 접수 (memorypicture@naver.com)
- 유의 사항
 1. 심사 관련 : 심사와 선정, 관련된 사항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2. 신청 관련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 사업서는 사무국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3.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 계획이 추진 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의무와 협조 사항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과정과 성과물 제출 (첨부 양식)
 -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 기록물 필수 (활동 영상, 사진, 활동 결과물 사진 등)
 -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과 관련 자료는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모임 홍보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적극 지원함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라이트라이프 업무협약



지난 3월 29일, '라이트라이프'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이트라이프'는 친환경 정리수납 서비스 업체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는 생전에 필요한 정리 정돈 문화와 사후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웰빙 및 웰다잉' 캠페인을 협력 추진합니다.

2023년 3월

여태원 조합원 부친상
이진형 조합원 빙부상
성보란 조합원 모친상
최대식 조합원 부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정대근 조합원 본인상
권정은 조합원 부친상
신혜리 조합원 모친상
권위경 조합원 시부상
이희재 조합원 형제상

정현기 조합원 부친상
박기홍 조합원 빙모상
전계동 조합원 조모상
윤재경 조합원 배우자상
정귀례 조합원 모친상

2023년 2월

신윤동욱 조합원 모친상
유강문 조합원 모친상
하재찬 조합원 제수상

차혜숙 조합원 지인상
하태웅 조합원 부친상
이영삼 조합원 형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양훈 조합원 이모상

2023년 1월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흥근 조합원 모친상
김명환 조합원 모친상
배한익 조합원 부친상
강희정 조합원 조부상
전지영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상기 조합원 부친상

김창재 조합원 빙모상
윤광한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귀년 조합원 모친상
김동희 조합원 모친상
안창로 조합원 빙모상
김상규 조합원 빙부상

백종필 조합원 부친상
안영찬 조합원 빙부상
문경인 조합원 조모상
강상철 조합원 모친상
심명희 조합원 시모상
이옥자 조합원 모친상
김석원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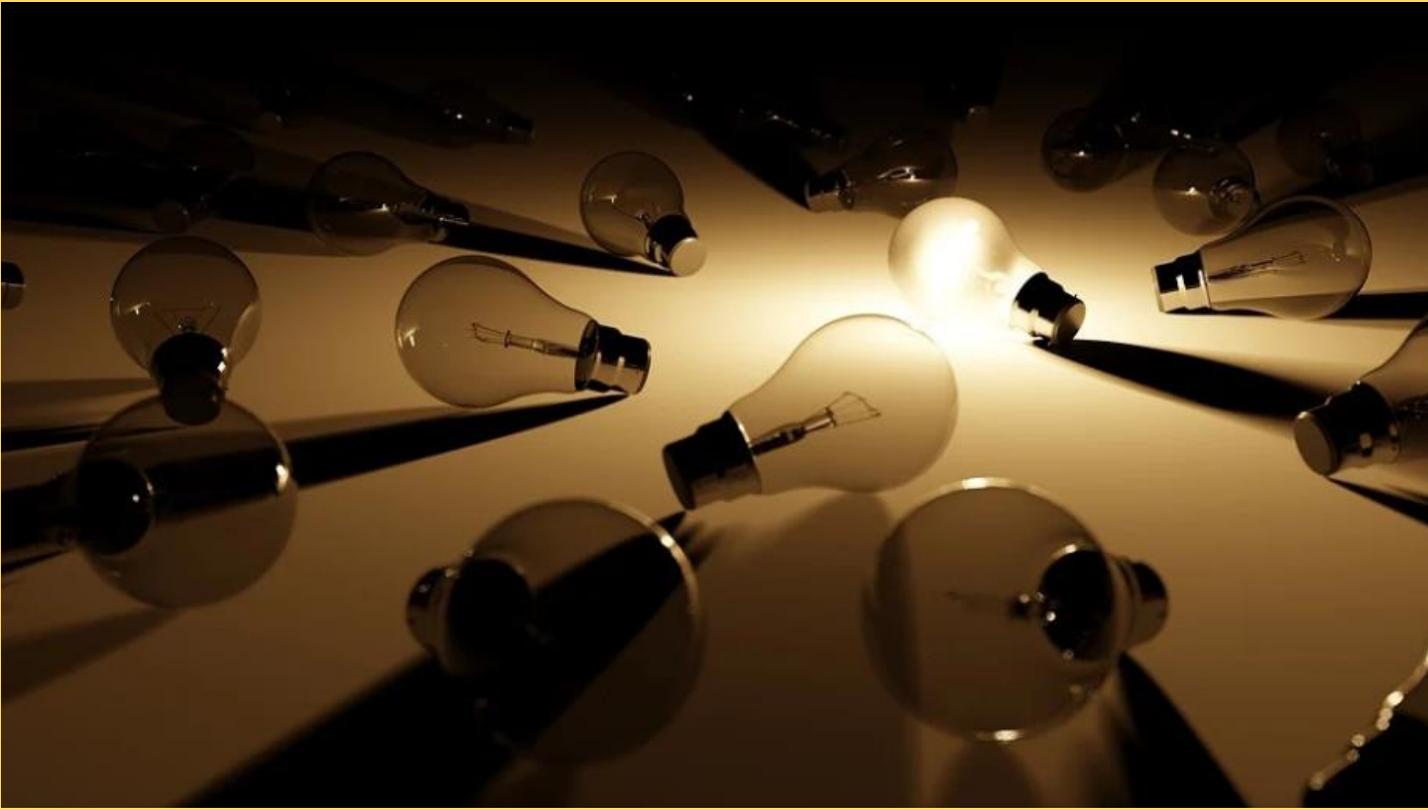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GG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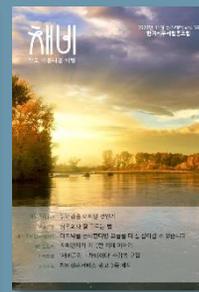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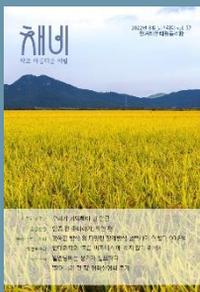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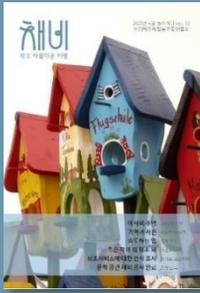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